

투데이 칼럼

북한 로켓 인양 시도

우리 군이 지난 5월 31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 천리마1형 인양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2차 발사에 나설지,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인양에 성공한다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수심 75m 아래 가라앉아 수평으로 누워있는 천리마1형의 잔해는 길이 약 15m, 직경 3m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잔해가 2단 추진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3단 추진체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나온다.

인양에 성공하면 백두산 엔진의 성능은 물론 연료와 발사체의 성분, 기술력 등 북한 미사일의 최신 기밀을 알아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앞으로 위성을 발사할 땐, IMO,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대책을 세우려고 위협했다.

북한이 2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추가 발사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설비를 이동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2차 발사가 임박한 건 아닌지 주목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하루 전, 우리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정복규

논설위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엘샘)의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L-SAM은 고도 40~60km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서 저층 방어용인 페트리엇 미사일과 고고도가 대상인 사드와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발사 자체를 통제하는 이른바 '발사의 원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 군비경쟁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L-SAM을 오는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발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고도에서 요격하는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L-SAM의 도입은 소위 하강 단계의 지층이 아니라 바로 위에 중층까지 방어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 하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 개념의 김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여러 발사체를 쏘아 쏘거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김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량 응징 보복도 피해를 입은 뒤 공격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하거나 전자기파 공격으로 발사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발사의 원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8번 쏘았지만, 7번은 발사 직전이나 직후 폭발했다.

미국의 사이버 교란, 즉 '발사의 원편'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발사의 원편'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게 미사일 발사를 다 막는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발사의 원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도 지난 1월, 전략사령부 산하에 별도의 부대를 창설해 개발 의지를 공식화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방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다. 군비경쟁이 되고 할 수 없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결합하고 정찰 위성까지 갖추려고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3축 체계는 물론 '발사의 원편'까지, 한일 합의로 누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도 절대 안보 구축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일 군사 협력의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하는 등 '연합 순찰' 훈련을 벌였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는 지난 5월, '연합 공중 전락순찰'을 명목으로 남해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7월엔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비행에 나섰다.

중,러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독자제언

“마약,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어,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의 범위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강화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준다는 마약이 은 유통수를 제공한 후, 부모에게서 금원을 갈취해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10대 0.3%에서 2.8%, 2대 1.3%에서 3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의 비율은 2019년 74%(1751명)에서 2020년 74.0%(1960명), 2021년 75.8%(1962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마약 예방은 교육과 정보 전달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의 위험성

과 부작용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약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자녀들에게 적절한 가치관과 규범을 전달하며, 마약 남용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방뿐만 아니라 조치와 대응도 필요합니다. 마약 남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과 법적재제는 마약을 통제하고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및 재통합 프로그램 지원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우리는 마약 남용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상기합니다.

김대근 고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모디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Narendra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전주시설공단의 노인 일자리 협약

전주시설공단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설공단은 최근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고 부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공단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은 현재 '시니어시설관리공단 행정서포터즈'와 '따뜻한 동행', '꽃길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 수단인 '어울림 버스'의 승차권을 돕고 있다.

나후된 거리와 유희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기도 한다. 지난해 이들 사업으로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는 120여 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의 노인들이 일을 하며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느낀다는 평을 받는다.

이에 앞서 전주시설공단은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와도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설공단은

노인 근로자 채용 시 관련 취업 정보를 센터에 제공한다. 그리고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는 구직자들에게 공단의 노인 일자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전주시설공단은 환경 관리와 정비, 주차 관리 등 일부 직종을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분류해 어르신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특히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을 활용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공익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친부모 찾는 독일 입양인

어느 40대 독일 입양인이 전주를 찾아와 친부모를 찾는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제니퍼씨(한국명 송경순·45.여)가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갓 태어난 상태로 1977년 7월 16일에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전주시 서노송동 617번 어느 집 앞이다. 미아로 발견됐을 당시 이름도 모르는 한 시민이 당시 시청 옆에 있던 역전파출소에 신고했다.

그는 전주 비사벌 보육원으로 옮겨졌다. 그 뒤 서울로 옮겨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6달 만에 독일로 입양됐다. 제니퍼씨는 2010년과 2014년에도 친부모를 찾아 전주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친부모를 찾아 세 번째 전주를 방문한 그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정치학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인 독일인 남편과 함께 딸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을 꼭 찾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실사만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1958년부터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17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친부모 찾기에 성공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출생 및 입양 기록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 입양인 송경순씨와 그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노송동 주민센터(063-220-1738)로 연락할 수 있다. 직접 송씨의 이메일(song.nass@gmail.com)로 연락해도 된다. 송씨는 6월 9일 독일로 출국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